

파리의 문화예술인 동상건립과 도시정체성 만들기, 1880-1914*

민 유 기

- I. 들어가며
- II. 동상과 기억의 정치
- III. 정치인 동상건립을 둘러싼 갈등
- IV. 문화예술인 동상 건립과 민주적 숭배
- V. 나오며: 파리의 도시 정체성 만들기

I. 들어가며

1990년대 초반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직후 러시아나 동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레닌과 각국 통치자들의 동상이 철거되었다.¹⁾ 이들 동상의 철거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스펙타클 효과에 힘입어 20세기 말 ‘이데올로기 종언’의 상징으로 활용되곤 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절대주의 왕들의 동상 철거, 파리코뮌의 나폴레옹 동상 파괴와 마찬가지로 과거 통치자의 동상 해체는 일상의 공간 속에 스며든 과거와의 극적인 단절을 추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다.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세워진 역사 인물들의 동상은 대중에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도 하고 역사적 교훈을 주기도 하는 표상화된 혹은 상징화된 집단적 기억의 매개물이다. 시민들은 도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7-A00117).

1) Richard S. Esbenshade, "Remembering to Forget: Memory, History, National Identity in Postwar East-Central Europe", *Representations*, No. 49, Special Issue: Identifying Histories: Eastern Europe Before and After 1989(Winter 1995), pp. 72-96. 이 학술지 특집호에 실린 다른 논문들도 참고하라.

곳곳에 설치된 각종 위인 동상을 약속 장소로 활용하거나 산책이나 이동의 순간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상의 기표뿐만 아니라 기의까지, 동상의 외형적 조형미뿐만 아니라 동상 주인공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역사적 평가까지도 자연스럽게 수용하곤 한다.

집단적 기억의 터로 기능하는 공공장소에 건립된 기념비나 동상은 특히 근대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대나 중세도시에 세워진 기념비나 동상의 주인공들은 통치자와 전쟁영웅 혹은 순교자와 성인들이었다. 물론 근대도시에서도 정치가와 군인 그리고 종교인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기념비와 동상들이 세워지긴 하지만, 전근대에 비해 사회적 숭배의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는 개인들의 동상들이 더 많이 세워진다. 근대도시는 새로운 공간의 구성과 배치, 상징적 기념물의 조성, 이미지 확립을 위한 다양한 기획에 의해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그 이면에는 권력과 다양한 사회적 행위 주체 사이의 긴장관계가 작용한다. 따라서 근대도시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의미를 창출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힘겨루기의 복합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19세기 근대도시의 정체성 형성과 문화정치에 관한 사례 연구로는 하비(D. Harvey)의 파리 사크레코르 성당(Basilique du Sacré-Cœur) 연구가 흥미롭다. 그에 의하면 1875~1919년 사이에 몽마르트르 언덕에 건립된 이 성당은 1871년 코뮌의 ‘죄’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범죄와 매춘, 코뮌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몽마르트르에 새로운 공간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³⁾ 하비의 연구는 프랑스-프로이센 전쟁과 코뮌을 거치며 등장한 프랑스 제3공화정이 제도적 안정화를 추구해가는 동시에 수도 파리의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려 했음을 잘 보여준다.

파리코뮌의 경험은 19세기 전반기 파리가 지녔던 ‘혁명의 도시’, ‘바리케이드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켰는데 제3공화정의 부르주아 공화파는 이 같은 저항적 도시 이미지를 탈색시키고 온건한 것으로 대체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사크레코르 성당은 파리 전체가 아닌 몽마르트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것이었고, 교권주의에 반대하며 세속성을 추구하던 부르주아 공화파

2)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서울: 논형, 2005), 35쪽.

3) 데이비드 하비,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김병화 옮김(서울: 생각의 나무, 2005), 443-484쪽.

는 성당 건립을 반기지도 않았다. 파리 전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주요 매개물은 사크레쾨르라는 하나의 성당이 아니라 20세기 전환기에 도시 전역에 건립된 문화예술인 동상들이었다.

오늘날 파리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다양한 삶이 펼쳐지는 대도시의 정체성은 하나로 규정될 수 없을 것이다. 파리는 혁명의 수도이자 부르주아 근대문화의 수도이다. 파리는 민중의 도시이자 부르주아의 도시이다. 파리 시민들이 그리고 파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이 같은 이중적 도시 정체성에서 보다 선호하는 정체성은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파리를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⁴⁾ 거리와 광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동상을 통해 일상에서 기억되고 숭배되는 미술가, 음악가, 문인 등 예술가들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에 이바지한 과학기술자들은 파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파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파리가 얼마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파리의 동상은 역사학의 흥미로운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마리안느(Marianne)’라는 공화국의 상징물을 통해 프랑스 정치문화를 고찰한 아귈롱(M. Agulhon)은 1975년의 논문에서 19세기 프랑스 도시들에 건립된 동상, 기념비, 건축물이 도시공간을 미학적으로 장식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1978년 논문에서는 20세기 전환기 파리 시민들의 ‘동상마니아(statuomanie)’⁵⁾ 현상을 분석했다.⁶⁾ 랑프랑쉬(J. Lanfranchi)는 아귈롱의 지도를 받은 1979년 파리 제1대학 박사논문에서 프랑스혁명부터 1940년까지 파리에 건립된 위인 동상들을 분석하며 동상의 정치적, 문화적 기능을 밝혔고, 학위논문을 축약하고 20세기 후반의 상황을 보완하여 2004년에 대중적 교양서를 출간했다.⁷⁾

4) 파인 김동환이 1929년 7월에 창간한 잡지 『三千里』의 1930년 5월호에 실린 파리의 노동절 거리행진 소개 글은 “藝術의뜻가운데잠긴巴里”로 시작한다. 李晶燮, 「巴里의五月一日行進」, 『三千里』, 昭和五年 初夏號, 8쪽.

5) Gustave Pessard, *Statuomanie parisienne. Etude critique sur l'abus des Statues* (Paris: H. Daragon, 1912).

6) Maurice Agulhon, “Imagerie civique et décor urbain dans la France du XIX^e siècle”, *Ethnologie française*(1975), pp. 33-56; “La «statuomanie» et l'histoire”, *Ethnologie française*(1978), pp. 145-172.

7) Jacques Lanfranchi, *Les Statues des Grands hommes à Paris, Coeurs de bronze, Têtes de pierre*(Paris: L'Harmattan, 2004); *Statues de Paris 1800-1940*.

미국의 미술사학자인 하그로브(J. Hargrove)는 1986년에 노라(P. Nora)가 편집한 『기억의 터(Lieux de mémoire)』에 실린 논문에서 19세기 파리의 동상을 둘러싼 파괴와 복구의 긴장관계를 밝혔고, 1989년에 파리의 위인 동상 연구서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동시에 출간했다.⁸⁾

파리에 건립된 동상에 대한 이들 선행연구들은 위인 동상 건립이 도시경관의 변화에 작동하는 문화정치의 주요 테마임을 잘 보여주지만 한계도 지닌다. 왜 1880년과 1914년 사이에 문화예술가들이 동상 건립을 통해 집단적으로 기억되고 숭배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이들 연구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문화예술인 동상 건립과 파리의 도시 정체성 문제가 어떤 함수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동상과 기억의 정치

1880년과 1914년 사이의 문화예술인 동상 건립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시기 동상 건립의 특성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20세기에 파리에 세워진 위인 동상은 347개로 325명이 이들 동상의 주인공들이다. 동상의 개수와 주인공 수의 차이는 2개 이상의 동상으로 건립된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시대별 동상 건립의 수를 보여준다. 1870년부터 1914년까지 건립된 155개에서 1870년대에 세워진 동상 2개를 빼면 1880년부터 1814년까지 35년 동안에 153개의 위인 동상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

Les Statues des Grands hommes élevées à Paris des lendemains de la Révolution à 1940, Thèse, Univ. Paris I(1979).

8) June Hargrove, “Les Statues de Paris”, Pierre Nora, *Lieux de mémoire*, II-3 (Paris: Gallimard, 1986), pp. 243-282; *Les Statues de Paris, la représentation des grands hommes dans les rues et sur les places de Paris*(Anvers: Fonds Mercator, Paris: Albin Michel, 1989); *The Statues of Paris, An Open-Air Pantheon. The History of Statues to Great Men*, trad. Marie-Thérèse Barrett (New York: Vendome Press, 1989).

9) Lanfranchi, *Les Statues des Grands hommes*, pp. 205-264. Hargrove, *Les Statues de Paris*, pp. 341-355. 19-20세기에 건립된 325명의 위인 동상 347개는 랑프랑쉬의 목록이다. 하그로브의 목록에는 위인 동상 수가 396개인데, 이 같은 차이는 거리, 광

〈표 1〉 19~20세기 파리에 건립된 위인 동상 통계

기간	1802~1815	1815~1830	1830~1848	1848~1870
체제	통령정부, 제1제정	복고왕정	입헌왕정	제2공화정, 제2제정
개수	2	3	7	12
기간	1870~1914	1914~1940	1944~1958	1958~2001
체제	제3공화정 전기	제3공화정 후기	해방과 제4공화정	제5공화정
개수	155	62	21	84

동상은 죽은 이를 산자의 기억 속에 영속화시키는 매개물이다. 따라서 동상 건립은 항상 기억의 정치와 관련된다. 파리에서 최초로 건립된 동상은 17세기 초에 세워진 앙리 4세(1553~1610)의 동상이다. 1589년에 부르봉 왕조를 창시한 앙리 4세는 1610년에 암살당했는데, 왕비 마리 드 메디시스(Marie de Médicis)는 9살에 왕위에 오른 루이 13세를 섭정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 피렌체에 세워진 친정 메디치 가문 인물들의 동상에 영감을 받아 남편의 동상을 세우게 했다. 센 강 최초의 석조 다리로 1607년에 완공된 퐁뇌프(Pont-neuf) 한 가운데 1614년에 세워진 앙리 4세의 청동 기마상은 시테 섬에 위치한 고등법원과 노트르담 성당을 응시하고 있다.¹⁰⁾ 1614년은 마리가 공식적으로 섭정을 끝낸 해인데, 여전히 어린 루이 13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귀족과 성직자들의 공간인 시테 섬은 죽은 부왕의 시선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앙리 4세 이후 절대왕정의 왕들은 루이 16세를 제외하고 통치 기간에 파리의 주요 광장에 건립된 동상을 통해서 위엄을 드러냈다. 루이 13세(1601~1643) 동상은 리슐리외 재상의 구상으로 왕의 광장(Place Royale)에 1639년에 건립되었고,¹¹⁾ 루이 14세(1638~1715) 동상은 1686년에 빅투아르 광장

장, 공원에 건립된 동상 외에 특정 건물의 안뜰이나 내부에 세워진 동상의 경우 해당 건물의 공격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그리고 하나의 동상 조형물에 여러 인물이 포함된 경우 위인 동상 개수를 하나로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두 연구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기간에 파괴되었다가 복구되지 않은 일부 동상을 제외한 300개 이상의 위인 동상이 현재 파리의 공공장소에 놓여 있다.

10) Geneviève Bresc-Bautier et Xavier Dectot, *Art ou politique? Arcs, statues et colonnes de Paris*(Paris: 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1999), pp. 36-41.

11) 이 광장은 1605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612년 루이 13세와 에스파냐 공주 안 도트리쉬(Anne d'Autriche)의 약혼식에 맞춰 완공되었다. 결혼식은 3년 뒤인 1615년에 열렸는

(Place des Victoires)에 그리고 1699년에 루이 대왕 광장(Place Louis le grand)에 절대왕정의 충성스런 신하들에 의해 건립되었다.¹²⁾ 루이 15세(1710~1774)의 동상은 파리 시장(Prévôt des marchands de Paris)과 행정관들(Echevins)에 의해 1763년에 루이 15세 광장에 건립되었다.¹³⁾

1792년 8월 10일 파리의 민중은 혁명수호를 위한 대외전쟁에 소극적인 루이 16세가 거주하던 킬리 궁을 공격하여 왕권폐지를 선언하였고, 이후 2-3일내에 공공장소에 건립된 모든 왕의 동상들을 철거하였다. 혁명정부는 절대왕정과 교회를 기억하게 하는 거리와 광장의 명칭들을 자유, 평등, 우애, 혁명, 인권 등의 혁명적이고 세속적인 명칭으로 대체하였다.¹⁴⁾ 하지만 철거한 왕의 동상 자리와 상징적 공공장소에 혁명정부와 민중이 기억하고자 하는 계

데, 루이 13세는 오랫동안 후사가 없다가 1638년에 첫 아들을 얻었고, 이 아들이 1643년에 즉위하는 루이 14세이다. 재상 리슐리외는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루이 13세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였다. 왕의 광장은 1800년에 보주 광장(Place des Voges)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이 명칭은 혁명정부에 최초로 세금을 납부한 프랑크 동북부 보주 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Alexandre Gady, *De la place royale à la place des Vosges*(Paris: 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1996); Marc Gaillard, *Paris de place en place*(Amiens: Martelle, 1997), pp. 4-9.

12) 빅투아르 광장, 즉 승리 광장은 루이 14세의 총사령관이었던 라퐁미야드 공작(Duc de La Feuillade)이 왕의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조성한 광장이다. Isabelle Dubois, Alexandre Gady, Hendrik Ziegler et Claude Mignot, *Place des Victoires: Histoire, architecture, société*(Paris: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2004), pp. 9-48; Marc Gaillard, *Paris de place en place*, pp. 14-16. 루이 14세의 별칭인 루이 대왕 광장은 루이 14세의 수석건축가였던 망사르(Mansart)가 정비하였고, 루부아(Louvois)의 구상으로 왕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루이 대왕 광장은 대혁명기에 피크 광장(Place des Piques)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나폴레옹 통치기에 방돔 광장(Place Vendôme)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이 명칭은 루이 대왕 광장이 정비되기 전에 이곳에 위치한 방돔 공작의 저택에서 유래한다. Thierry Sarmant et Luce Gaume, *La place Vendôme: Art, pouvoir et fortune*(Paris: 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2003); Gaillard, *Paris de place en place*, pp. 18-24.

13) 루이 15세 광장은 1792년에 혁명 광장으로, 1795년부터 조화 광장을 뜻하는 콩코르드 광장(Place de la Concorde)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복고왕정기에 다시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렸고, 1830년 혁명 직후에 입헌광장(Place de la Charte)으로 불리다가 콩코르드 광장으로 명칭이 고정되었다. Bresc-Bautier et Dectot, *Art ou politique?*, pp. 72-77; Gaillard, *Paris de place en place*, pp. 28-32.

14) Daniel Milo, "Le Nom des Rues", Nora (dir.), *Lieux de mémoire*, II-3, pp. 290-296.

몽사상가들의 동상을 건립하고자 했던 계획은 재원 문제와 혁명정국의 소용돌이 와중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나폴레옹 통령정부는 1802년에 빅투아르 광장에 드제(Desaix, 1768~1800)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귀족 출신으로 혁명정부를 지지했고 나폴레옹의 이탈리아와 이집트 원정에서 공을 세운 그는 1800년 이집트에서 귀환 직후 북이탈리아 마렌고(Marengo)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의 공격으로 전사했다.¹⁵⁾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가 되기 전에 드제 장군을 활용하여 자신의 원정 승리에 대한 기억을 확산시켰다. 1804년에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획득한 적의 청동 대포를 녹여 전승기념 원주를 제작하게 했고, 이를 루이 14세 동상이 파괴되어 비어 있던 방돔 광장 한복판에 1810년에 세웠다. 지상에서 하늘로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의 연대기를 부조로 조각한 전승기념 원주의 꼭대기에는 자신의 동상을 올려놓았다.¹⁶⁾

복고왕정은 빅투아르 광장의 드제 장군 동상과 방돔 광장 전승기념 원주 위의 나폴레옹 동상을 1817년에 파괴하였다. 전승기념 원주 자체는 프랑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기에 살아남았다. 이보다 앞서 1816년 1월 19일자 포고령으로 대혁명기에 파괴된 왕의 동상에 대한 복원이 결정되었다.¹⁷⁾ 1817년에 제1제국의 기억을 제거한 복고왕국은 대혁명기에 철거된 부르봉 왕조의 앙리 4세, 루이 13세, 루이 14세 동상을 1818년, 1822년, 1829년에 차례로 복원하였다. 빅투아르 광장의 루이 14세 동상은 복원되었으나 방돔 광장의 루이 14세 동상은 전승기념 원주 탓에 복원되지 않았다. 루이 15세 동상도 복원되지 못했는데 혁명기에 기요틴에 의해 루이 16세가 처형된 콩코르드 광장이 지닌 혁명의 상징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1830년 7월 혁명으로 수립된 자유주의적 입헌왕국은 1821년에 유배지에서 사망한 나폴레옹에 대한 기억과 추모 열기를 7월 왕국에 대한 지지로 활용하

15)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Special Issue: Louis Charles Antoine Desaix. Officier du roi, Général de la République, No. 324(2001), pp. 1-191. 드제 장군에 대한 특집호 소개 글과 15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16) 이 기념비는 로마의 포로 로마나에 위치한 트라야누스(Trajanus) 황제의 승전기념 원주를 모방한 것이고, 꼭대기의 나폴레옹은 로마 황제의 의상을 걸치고 있었다. 매트 마쓰다, 『황제의 위상: 나폴레옹 승전 기념비에 대한 프랑스인의 기억 변화』, 제프리 K. 올릭 엮음,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 갈등, 변화』, 최호근, 민유기, 윤영희 옮김(서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6), 105쪽.

17) Gaillard, *Paris de place en place*, p. 14.

고자 했다. 이에 따라 1833년에 방돔 광장 전승기념 원주 위에 나폴레옹 동상이 다시 세워졌는데 동상의 모습은 최초의 동상 모습이었던 로마 황제의 복장이 아닌 ‘꼬마 하사관’의 복장을 착용했다.¹⁸⁾ 또한 입헌왕국을 통치한 루이 필리프는 가문의 뿌리인 카페 왕조의 왕들 가운데 프랑스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성왕 루이 9세(1214~1279)와 필리프 2세(1165~1223)의 동상을 1843년에 파리의 동쪽 경계에 완공된 트론 광장(Place du Trône)의 두 개 원주 위에 건립하였다.¹⁹⁾ 1833년에 쉐 지사에 임명되어 1848년 2월 혁명까지 재직 한 랑뷔토(Rambuteau)는 파리의 도시정비와 미화를 추진하면서 트론 광장을 비롯한 여러 광장을 조성했고, 파리 곳곳에 30개의 분수 건설을 추진했다.²⁰⁾ 이 같은 도시정비 과정에서 1842년 왕의 칙령과 이듬해 내무부장관의 허가로 생쉴피스(Saint-Sulpice) 성당 광장의 분수 건설이 결정되었고, 1847년에 구체제의 성직자 4인 동상이 동서남북 방향을 바라보는 분수가 설치되었다.²¹⁾

프랑스 국립극장(Comédie-Française)은 17세기의 대표적 극작가인 몰리에르(Molière, 1622~1673) 동상 건립을 복고왕정 시기부터 시도했으나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 19세기 초의 신고전주의에 반대하며 낭만주의 조각을 주창했던 조각가 다비드 당제(David d'Angers)에 따르면 7월 왕정은 “공공장소를 위인에게 헌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단지 왕들을 위해 장소를 예약하려는 의지”를 지녔다.²²⁾ 하지만 도시미화를 위해 건립되는 분수에 위인 동상을 세우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자, 1844년에 몰리에르의 동상이 분수와 함께 건립되었다. 다비드 당제는 분수를 통해 위인의 동상을 세우는 것을 반

18) 이용재, 『나폴레옹: 역사를 넘어 신화로 남은 사나이』, 박지향 외, 『영웅 만들기: 신화와 역사의 갈림길』(서울: 휴머니스트, 2005), 70쪽.

19) Bresc-Bautier et Dectot, *Art ou politique?*, pp. 78-82, 135-136.

20) 7월 왕정 기간의 파리의 도시정비에 대해서는 François Loyer, *Paris XIX^e siècle, L'immeuble et la rue*(Paris: Hazan, 1994), pp. 106-134.

21) 생쉴피스 분수에 동상이 건립된 성직자는 보쉬에 주교(Jacques Bénigne Bossuet, 1627-1704), 프넬롱 대주교(François Fénelon, 1651-1715), 플르쉬에 주교(Esprit Flechier, 1632-1710), 마시옹 주교(Jean-Baptiste Massillon, 1663-1742)이다. Archives Nationales(AN), F21 575 Note au ministre de l'Intérieur, le 27 juin 1843.

22) David d'Angers, Notes de David d'Angers, *L'Art*, 1875, III, p. 406. Hargrove, *Les Statues de Paris*, p. 85 각주 19에서 재인용.

기지 않았지만, 물리에르 동상 분수는 공공장소를 세속적 위인 숭배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²³⁾

1850년에는 나폴레옹 1세의 주치의로 유배지에서 황제의 최후의 날들을 지켜본 라레(D. Larrey, 1766~1842)의 동상이 육군병원 안뜰에, 1851년에는 구텐베르크 동상이 국립인쇄소 안뜰에 세워졌다. 이처럼 특정 직업군에서 숭배되는 이들은 거리나 광장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나 건물의 뜰에 세워졌다. 이런 현상은 제2제정기에 계속되었다.²⁴⁾ 제2제정이 공적 숭배를 위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군인 동상 건립이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당시의 영웅 네(Michel Ney, 1769~1815) 장군의 동상 제작식은 1853년에 황제와 각료들,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나폴레옹 3세는 1852년에 제국을 선포하면서 “나폴레옹 전설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제2제정의 존재를 확고히 하려는 이중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제1제정기 유명 장군의 동상 건립을 주도했다.²⁵⁾

1863년에는 방돔 광장 전승기념 원주 위에 입헌왕국이 세운 ‘꼬마 하사관’의 모습을 한 나폴레옹 1세 동상이 상이군인병원(Invalides)으로 옮겨지고 최초의 동상과 비슷한 로마 황제의 복장을 입은 동상으로 대체되었다. 제2제정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 등장한 시점에서 나폴레옹 1세를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황제로 상징화하여 나폴레옹 3세의 권위를 재정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²⁶⁾ 제2제정은 나폴레옹 1세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기억하

23) Hargrove, *Les Statues de Paris*, p.87.

24) 1857년에 의사 비샤(Xavier Bichat, 1771~1802) 동상이 프랑스 의사협회 주도로 파리 의과대학 정원에, 1858년에 화가 르 쉬에르(Eustache Le Sueur, 1617~1655) 동상이 예술가 자유협회 주도로 퓌상부르 정원에, 1861년에 맹인 청소년들을 후원한 자선가 아우이(Valentin Haüy, 1745~1822) 동상이 맹인연구소 안뜰에, 1863년에 조세핀의 아들로 나폴레옹 1세가 양자로 받아들인 군인 보아르네(Eugène de Beauharnais, 1781~1824) 동상이 상이군인병원 내에, 1864년에 생물학자 도방통(Louis Daubenton, 1716~1800) 동상이 풍토학회 주도로 학회 인근 정원에, 1866년 약학자 파르망티에(Antoine Parmentier, 1737~1813) 동상과 1867년 화학자 보클랭(Nicolas Vauquelin, 1763~1829) 동상이 파리 약학대학 앞거리에 설립되었다.

25) Lanfranchi, *Les Statues des Grands hommes*, p. 28.

26) 1863년 5월 31일 선거에서 제2제국 탄생 이후 처음으로 32명의 야당의원이 선출되었고 이 가운데 17명의 공화파 의원들이 제국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제2제국은 이전까지의 ‘권위주의적 제국’에서 일부 자유주의적 활동을 허용하는 ‘자유주의적 제국’으로 변모하였다.

게 하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산시키려 했으나, 이 같은 기억의 정치는 1871년 파리코뮌이 방돔 광장의 전승기념 원주와 나폴레옹 동상을 파괴하면서 강하게 거부되었다.²⁷⁾ 파리가 공모전을 통해 1869년에 건립한 몽세(Jeannot de Moncey, 1754~1842) 원수의 동상은 프로이센의 포위 속에서 자치정부를 구성한 코뮌나르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코뮌 관련 자료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코뮌나르들이 몽세 원수를 나폴레옹 1세의 장군으로 기억하기보다 1814년 유럽연합군의 파리 입성을 반대했던 인물로 기억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3공화정 탄생 이전에 파리의 공공장소에 건립된 동상은 그리 많지 않았고, 왕과 황제 그리고 군인 동상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왕과 황제가 직접 건립했거나, 후대에 대중의 기억과 향수를 자극해 통치 기반을 확립하려던 목적에서 건립된 왕과 황제의 동상들은 대혁명에서 코뮌에 이르는 정치체제의 변화들 속에서 파괴와 복원을 되풀이하였다. 군인 동상의 건립 역시 정치적 의도가 뚜렷했던 기억정치의 일환이었다. 권력자와 군인을 제외한 예술가, 과학자 등의 동상을 공공장소에 건립하여 숭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III. 정치인 동상건립을 둘러싼 갈등

제2제정 말기에 공화주의 운동을 전개한 공화파는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패배하자마자 1870년 9월 4일 파리 민중의 환호 속에 시청 앞 광장에서 공화정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제3공화정은 1875년에야 헌법을 채택했고, 1879년까지는 정치권력을 왕당파와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었기에 힘든 ‘유아기’를 보내야 했다. 유아기의 공화국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패배를 잊기 위해 백년전쟁의 영웅 잔다르크 동상을 1874년 2월에 건립하였다.²⁸⁾ “1871년 독일에 대한 패배를 계기로 ‘로렌의 소녀’는 복수와 희망의 상징이자 전투적 민족주의의 토털이 되었다.”²⁹⁾ ‘민중의 딸’로 기억하

27) 매트 마쓰다, 「황제의 우상: 나폴레옹 승전 기념비에 대한 프랑스인의 기억 변화」, 91-94쪽. 코뮌나르들이 파괴한 전승기념 원주와 나폴레옹 동상은 1875년에 복원되었다.

28) *Le Figaro*, le 21 février 1874.

29) 동상은 그녀가 1429년 7월 랭스 대성당에서 열린 샤를 7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이후 9월에 파리를 공략하다 부상당했던 생토노레(Saint-Honoré) 성문이 있던 자리에 세워

‘신의 사자’로 기억하건 그녀는 세속적 공화파와 우파 가톨릭 왕당파 모두에게 애국심의 상징이었다.³⁰⁾

전쟁의 패배와 코뮌을 겪으며 국민통합이 절실했던 터라 잔다르크의 동상 건립에는 어떠한 정치 세력도 반대하지 않았다. 문제는 샤를마뉴의 동상이었다. 1867년과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된 샤를마뉴 대체의 청동 기마상은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박람회 이후 이를 공공장소에 건립하는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었다. 1876년 하원선거에서 공화파가 약진하면서 왕당파가 정치적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오랜 논의 끝에 1879년 2월에 노트르담 성당 앞 광장에 임시로 샤를마뉴 청동상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³¹⁾ 청동상이 왕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강인한 전사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인데, 이는 전쟁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1870년대 말 이후 왕당파의 정치적 힘이 약해지면서부터 제3공화정은 대혁명 이래 한 세기에 걸친 왕당파와 공화파의 정치체제를 둘러싼 투쟁에서 벗어나 공화국의 제도와 가치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기반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과거가 선택적으로 강조되었다. 정치가들의 공적 숭배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가능한 동상 건립을 자제해야 했으나, 제3공화정의 탄생과 제도적 안정화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영속적인 기억화가 필요했다. 정치가와 군인의 동상 건립은 매우 주의 깊게 이루어졌다. 이 글의 말미에 소개하는 〈부록 1〉은 1880년과 1914년 사이 파리에 건립된 정치가와 군인 동상의 목록이다.

1883년에 동상이 건립된 정치가 바이(Jean-Sylvain Bailly)는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 다음 날 파리의 민중이 선출한 시장으로 근대 도시의 자치권을, 1888년에 동상이 세워진 마르셀은 중세 파리의 도시 자치권을 상징

했는데, 이 장소는 1830년대 초에 피라미드 광장(Place des Pyramides)으로 정비되어 있었다. 성백용, 『잔다르크: 그 기적의 서사시와 기억의 여정』, 박지향 외, 『영웅 만들기』, 140쪽. 같은 쪽과 143쪽에 동상 건립 연도를 1875년으로 표기한 것은 오키로 보인다. 잔다르크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기억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도 참고하라. Michel Winock, “Jeanne d’Arc”,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II-3(Paris: Gallimard, 1992), pp. 674-733.

30) Bress-Bautier et Dectot, *Art ou politique?*, p. 195.

31) Robert Morrissey, “Charlemagne”,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II-3, p. 668.

하였다.³²⁾ 시의회의 바이 동상 건립 논의는 파리코뮌 당시 불탄 시청사의 재건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혁명의 혁명가들에 대한 동상 건립은 논란을 야기했다. 혁명가에 대한 기억이 1789년이 가져온 자유뿐 아니라 1792년 민중이 야기한 혁명의 급진화와 평등의 추구, 1793-94년의 공포정치마저 환기시켰기 때문이다. 시는 1882년부터 당통 동상 건립을 준비해 ‘조국 방어’의 용기를 호소하는 모습의 동상을 1891년에 건립했다. ‘혁명의 순교자’ 마라의 동상은 시가 구매한 조각상을 1887년에 설치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시의회를 장악한 급진공화파의 노력이 컸다. 시의회는 우파의 반발에 맞서 마라 조각상이 지닌 ‘미학적 가치’를 내세웠다.³³⁾ 콩도르세는 제3공화정이 1880년대에 주력했던 공화주의적 교육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되어 시 공모전에 의해 1894년에 동상이 세워졌고,³⁴⁾ 데물랭은 급진공화파 정치가들의 주도로 1905년에 동상이 건립되었다.

당통과 데물랭은 1794년에 기요틴으로 처형당했고, 콩도르세는 같은 해에 체포를 피해 도주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보수파가 이들의 동상 건립을 마지못해 용인한 것은 이들의 죽음이 공포정치의 폐해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포정치를 주도한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는 제3공화정은 물론 오늘날에도 동상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공적 숭배가 커다란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³⁵⁾

1848년 혁명가와 제2공화정의 정치가로는 르드뤼-롤랭, 블랑, 아라고, 라스파유, 보댕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르드뤼-롤랭은 보통선거권의 창시자로 기

32) Bress-Bautier et Dectot, *Art ou politique?*, p. 170.

33) Hargrove, *Les Statues de Paris*, p. 119.

34) 당통 동상 건립 운동은 188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시의회는 혁명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1887년에야 승인 논의를 했고, 보수적 시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Conseil municipal de Paris(CMP), Procès-verbaux, le 30 décembre 1887, pp. 1248-1249. Bibliothèque Historique de la Ville de Paris(BHVP), Act 30, dossier Danton.

35) 시민단체인 ‘로베스피에르의 친구들(Les Amis de Robespierre)’은 2002년에 파리 시에 새로 생기는 거리이름을 로베스피에르 거리로 명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회당 소속 시장은 공공장소의 명칭이 사회갈등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단체의 2002년 회보를 참고하라. “Une rue Robespierre dans la capitale? La réponse du nouveau maire de Paris”, *Incorruptible*, no. 39(février 2002), “Pas de rue Robespierre dans la capitale? Les réactions au veto du maire de Paris”, *Incorruptible*, no. 40(mai 2002). 2009년에도 좌파 인사들의 동일한 청원이 있었으나 거부되었다. *L’Humanité*, le 29 octobre 2009.

역되었다. 제3공화정이 공화국의 안정과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공을 들인 것은 1880년대의 초등교육 개혁이었다. ‘교육동맹(Ligue de l’enseignement)’과 페리(J. Ferry)가 주도한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 세속화가 낳은 교과과정상의 가장 큰 변화는 종교 과목의 시민도덕 과목으로의 대체였다.³⁶⁾ 시민도덕 교과서들은 국민 전체가 보통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기에 혁명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가르쳤다.³⁷⁾ 화학자였던 라스파유와 동상 건립 주체가 파리 천문대였기에 우리가 과학기술자 동상 목록에 포함시킨 아라고는 온건한 공화파였다.³⁸⁾

1848년의 급진적 공화파 정치가로는 블랑과 보맹의 동상만이 건립되었다. 블랑의 동상은 급진공화파 시의원이자 저명 조각가였던 드롬프(L.-A. Delhomme)가 제작했다. 급진공화파는 블랑을 통해 국민작업장과 노동권을 환기시키고자 했기에 보수파는 물론이고 온건공화파의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온건공화파가 1870년대 초 보수적 우파의 보통선거권 제한 시도에 블랑이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동상 건립에 동의를 표하였다. 1851년 12월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저항하다 바리케이드에서 사망한 급진 공화파 정치가 보맹은 바리케이드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2공화정 체제를 쿠데타를 통해 전복한 나폴레옹 3세에 대한 저항을 상기시키는 인물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려 했던 순교자로 받아들여졌다. 보맹의 동상 제막식은 사망 50주년이 된 1901년에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파 정치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1900년 시의회선거에서 제1세력이 된 우파는 제막식에서 아유를 보내기도 했다.³⁹⁾

1848년 2월 혁명 당시 노동자 대표로 임시정부에 참여한 노동자 알베르

36) 민유기, 『프랑스 교육동맹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 1868-1889: 부르주아 공화파의 교육개혁운동과 사회통합』, 『사총』 48집(1998), 223-257쪽.

37) 1880년대 초등교육 개혁 이후 시민도덕 교과서로 가장 많이 사용된, 교육동맹 주요 활동가이자 공교육부 장관을 지낸 베르의 교과서 내용을 일부 살펴보자. “국민 전체는 보통선거권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랑스에 반대해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반이기 때문이다. 왕 스스로가 법을 만들 때, 왕을 이성적으로 만든 유일한 수단이었다던 피의 대가를 치른 혁명은 오늘날 필요가 없다. 규칙적인 선거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변화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P. Bert, *L’instruction civique à l’école* (Paris: Picard-Bernheim, 7^e édition, 1882), p. 76.

38) AN, F 21 4586, Dossier Raspail, note de Burty, le 20 mai 1889.

39) Lanfranchi, *Les Statues des Grands hommes*, pp.66-67.

(Ouvrier Albert)라 불린 마르탱(A. Martin 1815~1895)의 동상 건립 계획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코뮌나르의 동상 건립은 결코 허가를 받지 못했다. 1907년에 저명 문인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 사회당 하원의원 바이양(E. Vaillant), 브루스(P. Brousse) 등은 시의회 의장에게 코뮌의 여전사 루이즈 미셸(Louise Michel 1815~1895)의 동상 건립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⁴⁰⁾

제3공화정의 정치가로는 제2제정 시기부터 공화주의 활동을 전개했고 제3공화정 초기 왕당파에 맞서 공화정 체제를 지켜낸 강베타와 시몽의 동상이, 교육개혁의 아버지 페리와 교육동맹의 창시자 마세, 파리 시의회 의장을 지낸 루셀, 급진당의 대표적 정치가 플로케, 그리고 드레퓌스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공화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지켜낸 슈레르-케스너와 인권동맹의 창시자 트라이유, ‘공화국 수호 내각’을 이끈 발텍-루소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강베타의 동상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당시 국민방어정부를 이끌었고 포위된 파리를 기구로 탈출해 지방에서 군대를 모집한 그를 추모하는 전국적 성금으로 건립되었다.⁴¹⁾

군인 동상 건립은 극히 적었다. 파리에 위인 동상 건립 붐이 일자 미국인들과 이탈리아인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라파예트, 워싱턴, 가리발디 동상을 세웠고, 프로테스탄트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1572년 생바르텔레미 학살 때 가톨릭에 의해 살해된 콜리니의 동상을, ‘자유사상회(La Libre Pensée)’가 18세기 종교적 불관용의 상징적 희생자인 라바레의 동상을,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문인 뒤마의 아버지였던, 귀족과 서인도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혼혈 출신으로 나폴레옹의 장군을 지낸 뒤마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순수한 의미에서의 군인 동상은 세 개만이 남는다. 세 명은 사하라 개척 중 사망한 하급 장교 플라테르, 메콩강 탐사의 주역으로 인도차이나에서 사망한 하급 장교 가르니에와 인도차이나에서 사망한 하사 보비오로 각각의 추모 사업회가 동상을 건립하였다.⁴²⁾

19세기 말에 프랑스가 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에서 식민 영토를 확장해갔

40) *Ibid.*, p. 89.

41) BHVP, Act 30 Dossier Gambetta, Recueil de documents concernant Souscription nationale. Louis Charles Boileau, *Monument à Gambetta, souscription, programme, commentaire du projet Aubé-Boileau*(Paris, 1900).

42) Lanfranchi, *Les Statues des Grands hommes*, p. 61.

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의 극적인 죽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하급 장교와 한 명의 하사관 외에 전쟁영웅이나 장군들의 동상 건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패배는 프랑스인들의 군에 대한 감정을 좋지 않게 만들었으며, 보수적 우파 및 교권주의 가톨릭과 결탁한 군부는 공화파에게 항상 경계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대독 복수를 외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던 불량계 장군의 정치적 성장과 몰락은 군인을 위인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각인시켰다. 국가 방어에 대한 환기는 당통, 강베타, 라페⁴³⁾ 등 군인이 아닌 다른 위인들의 동상을 통해 가능했다.⁴⁴⁾

IV. 문화예술인 동상건립과 민주적 숭배

왕당파와 보수파가 주도한 공화정은 1870년대 말부터 변모하기 시작했다. 1876년 하원선거에서 공화파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자 왕당파 대통령 막마옹은 1877년 5월 16일 의회를 해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같은 해 10월에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공화파는 여전히 다수가 되었고, 1879년 상원 선거에서 공화파가 다수가 되자 왕당파 대통령이 사임하고 뒤를 이어 공화파 그레비가 대통령에 취임해 ‘공화파의 공화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전 시대와 다른 양상을 보인 위인 동상 건립은 ‘공화파의 공화국’이 확립된 1879년 이후부터, 즉 1880년부터 시작되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붐을 이루었다.⁴⁵⁾ ‘공화파의 공화국’ 정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장소에 위인 동상을 건

43) 화가 라페는 1830년대에 나폴레옹 전쟁 당시 죽은 자들 사이에서 복을 치는 꼬마병사를 묘사한 판화작품으로 유명해졌다. 1893년에 건립된 그의 동상 받침대에는 판화 속의 복치는 꼬마병사 상이 함께 놓였다. 이 동상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파괴된 후로 복구되지 않았다.

44) Bress-Bautier et Dectot, *Art ou politique?*, p. 185.

45) 샤흐트네는 제3공화정의 역사를 일곱 시기로 구분하였다. 왕당파와 보수파에 의해 힘든 시기를 보낸 공화국의 ‘유아기’(1870~1879), ‘공화파의 공화국’(1879~1893), ‘영광스런 공화국’(1893~1906),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성장 그리고 1차 대전의 ‘걱정과 유희의 나날들’(1906~1918), ‘환상의 시대’(1918~1931), ‘공화국의 쇠락’(1931~1938), ‘최후의 드라마’(1938~1940). Jacques Chastenet, *Histoire de la III^e République*, Tome I. *L’Enfance de la Troisième*(Paris: Hachette, 1852); Tome II. *La République des Républicains*(1954); Tome III. *La République triomphante* (1955); Tome IV. *Jours inquiets et jours sanglants*(1957); Tome V. *Les Années d’illusion*(1960); Tome VI. *Déclin de la Troisième*(1962); Tome VII. *Le drame final*(1963).

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동상 건립은 시민들이 조직한 특정 위인의 기념 사업회나 동상 건립위원회가 주도했고, 건립위원회가 제출한 계획서와 이에 대한 센 지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내무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공적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위인 동상을 건립할 수 있었다. 시소유지에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허가도 필요했다. 일부 개인 소유지에 건립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인 동상이 광장, 거리, 공원 등 시유지에 건립되었는데 시는 동상 건립을 희망한 장소의 도로 상태와 주변 건축물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와 동상의 예술적, 기술적,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했다. 시의회는 미학적 가치가 높은 동상에 대해 2백에서 6천 프랑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⁴⁶⁾

시민들이 구성한 특정 위인 동상 건립위원회가 제출한 대부분의 계획서는 내무부 장관과 시의 허가를 획득했다. 공화파 정부는 대혁명 이래 되풀이된 왕과 황제 동상들의 파괴와 복원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공적으로 기억하고 숭배하기를 원하는 거의 모든 이들의 동상 건립을 수용하여 세속적 위인들을 숭배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위로부터 숭배가 강요된 왕과 황제, 성인과 군인의 동상만이 공식적으로 건립된 데 반해 제3공화정은 아래로부터의 숭배, 즉 숭배의 민주화를 촉진시켰다. 홉스봄(E. Hobsbawm)은 『만들어진 전통』의 마지막 장에서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에서 국민국가의 전통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현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프랑스 제3공화정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가시적인 공공기념물 건립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대량의 위인 동상 건립은 “민주주의적 특질”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⁷⁾

제3공화정이 건립한 공공기념물로는 1889년 혁명 100주년에 레퓌블리크 광장에 조성된 ‘공화국’ 기념물, 1899년에 나시옹 광장에 건립된 ‘공화정의 승리’ 조형물이 있다. 이는 파리의 혁명적 구역들인 동쪽 구들에 온건한 이미지의 공화정 상징물을 조성해 “사회적·계급적 갈등을 국민국가적 서사에 필요한 통합적 정체성의 신화 속에 융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내포했다.⁴⁸⁾

46) Hargrove, *Les Statues de Paris*, pp. 106, 164.

47) 에릭 홉스봄 외,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 장문석 옮김(서울: 휴머니스트, 2004), 510쪽.

48) 민유기, 「19세기 파리 동쪽 광장들의 기념물과 도시의 정치기호학」, 『기호학 연구』 23집(2008), 539쪽.

위인에 대한 민주적 숭배가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은 더 이상 과거에 건립된, 위로부터 숭배를 강요당한 권력자들의 동상을 파괴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기억하고 존경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동상 건립에 열중하게 되었다. 1880년과 1914년 사이 건립된 150여 개의 위인 동상의 주인공들은 정치가와 군인이 약 22%, 문인과 예술인이 약 53%, 과학기술자와 자선가가 약 25%였다. 아래 <표 2>와 <표 3>은 동상으로 건립된 예술가들을 문인, 음악 미술공연예술가로 구분한 목록이다.⁴⁹⁾

<표 2> 1880~1914년 파리에 건립된 문인 동상 목록

이름과 생몰연도	특 징	위치	연도
단테(Dante) 1265~1321	이탈리아 작가, 시 구매 조각상 설치	5구	1880
뷔데(Guillaume Budé) 1467~1540	인문주의자, 그가 세운 콜레주 드 프랑스 안뜰 건립	5구	1883
뒤마(A. Dumas) 1802~1870	작가 중심 기념회	17구	"
비욘(François Villon) 1431~1463	시인, 시 구매 조각상 설치	5구	"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	계몽사상가, 사망 100주년 기념회	6구	1884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	시 구매 조각상 설치	9구	1885
스덴(Michel Sedaine) 1719~1797	극작가, 시 구매 조각상 설치	9구	"
볼테르(Voltaire) 1694~1778	계몽사상가, 사망 100주년 기념회	6구	"
라마르틴(Lamartine) 1790~1869	16구청 주도로 라마르틴 광장에 건립	16구	1886
셰익스피어(Shakespeare) 1564~1616	잉글랜드 작가, 국제문인협회 회원 기증	8구	1888
돌레(Etienne Dolet) 1509~1546	종교재판으로 희생된 인문주의자, 시공모전	5구	1889
루소(Rousseau) 1712~1778	계몽사상가, 사망 100주년 기념회	5구	"
라퐁텐(La Fontaine) 1621~1695	우화작가, 작가 중심 기념회	16구	1891
방빌(T. de Banville) 1823~1891	시인,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1892
샤르티에(A. Chartier) 1385~1433	중세 시인, 시 구매 조각상 설치	17구	1894
오지에(Emile Augier) 1820~1889	극작가, 기념회가 오데옹 극장 광장에 건립	6구	1895
뮈르제(Henry Murger) 1822~1861	극작가, 라보엠프의 원작자, 기념회	6구	"
보마르셰(Beaumarchais) 1732~1799	극작가, 피가로 의 결혼 원작자, 시 주도	4구	1897

49) 이 글에 소개되는 표들과 부록은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모두 필자가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이름과 생몰연도	특 징	위치	연도
모파상(Maupassant) 1850~1893	소설가, 문인협회 주도	8구	"
드레즈므(Maria Deraiemes) 1828~1894	작가, 여성운동가, 여성운동 개선과 권리요구 협회 주도	17구	1898
드릴(Leconte de Lisle) 1818~1894	시인,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
생트비브(Sainte-Beuve) 1804~1869	문학비평가,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
푸리에(C. Fourier) 1772~1837	철학자, 유토피안 사회주의자, 기념회	9구	1899
발자크(Honoré Balzac) 1799~1850	문인협회 주도	8구	1902
콩트(Auguste Comte) 1798~1875	실증주의 학회 주도, 소르본 광장에 건립	5구	"
도데(Alphonse Daudet) 1840~1897	문인협회 주도	8구	"
위고(Victor Hugo) 1802~1885	작가 중심 기념회가 위고 광장에 건립	16구	"
비케르(Gabriel Vicaire) 1848~1900	시인,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
파브르(F. Fabre) 1827~1895	소설가,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1903
파이론(E. Pailleron) 1834~1899	시인, 극작가, 언론인. 기념회	8구	1904
상드(George Sand) 1804~1876	여성작가,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
코르네유(P. Corneille) 1606~1684	극작가, 작가 중심 기념회	5구	1906
뒤마 피스(A. Dumas fils) 1824~1895	작가 중심 기념회가 아버지 뒤마 동상 옆에 건립	17구	"
라루메(G. Larroumet) 1852~1903	예술비평가, 파리미술원 원장, 기념회	1구	"
르플레(F. Le Play) 1806~1882	경제학자, 사회개혁가, 사회경제학회 주도	6구	"
뮈세(Alfred de Musset) 1810~1857	시인, 개인이 시에 기부한 조각상 설치	1구	"
실베스트르(Silvestre) 1837~1901	시인, 비평가, 작가 중심 기념회	8구	"
베르나르탱 드 생피에르(Bernardin de Saint-Pierre) 1737~1814	작가, 기술자, 작가 중심 기념회	5구	1907
샹폴리옹(Champollion) 1790~1832	이집트학자, 콜레주 드 프랑스 안뜰 건립	5구	"
골도니(Carlo Goldoni) 1707~1793	이탈리아 극작가, 단테협회 주도	4구	"
테일러(Baron Taylor) 1789~1879	극작가, 문예후원가, 공연예술가협회 주도	10구	"
베크(Henri Becque) 1837~1899	극작가, 작가 중심 기념회	17구	1908
마누엘(Eugène Manuel) 1823~1901	시인, 공화파 정치가, 기념회	16구	"
세르베(Michel Servet) 1511~1553	에스파냐 신학자, 화형당한 종교개혁가	14구	"
그레아르(O. Gréard) 1828~1904	교육개혁가, 교육자 중심 기념회	5구	1909
코페(François Coppée) 1842~1908	시인, 소설가, 작가 중심 기념회	7구	1910

이름과 생몰연도	특 징	위치	연도
뮈세(Alfred de Musset) 1810~1857	시 구매 조각상 설치	8구	"
페로(Charles Perrault) 1628~1703	동화작가, 국가 주도	1구	"
세귀르(Ségur) 1799~1874	여성 아동작가,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
클라델(Léon Cladel) 1835~1892	소설가,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1911
베를렌(Paul Verlaine) 1844~1896	시인,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
카모앵스(Camoëns) 1524~1580	포르투갈 시인, 포르투갈 정부 기증	16구	1912
라티스본(Ratisbonne) 1827~1900	시인, 작가 중심 기념회	6구	"

동상으로 건립된 문인들 가운데는 계몽사상가들이 포함되었다. 공화파는 “대혁명의 선구자들과 프랑스에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위인들에 대한 기억을 함당하게 숭배”하고자 하였다.⁵⁰⁾ 오랫동안 왕정과 제정에 맞서 공화주의를 전파해왔던 제3공화정 초기의 공화파는 스스로가 대혁명을 계승한다고 생각했다. 1878년 볼테르와 루소의 사망 100주년은 계몽사상가들에 대한 공적 숭배의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⁵¹⁾ 하지만 여전히 정치·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나 보수적 우파는 계몽사상가에 대한 숭배에 반발하였다. 급진적이었던 루소는 말할 것도 없고 온건한 볼테르 동상 건립 계획도 반발이 컸는데, 이는 보수적 우파가 볼테르의 관용정신이 공화파가 추진한 코뮌나르 사면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⁵²⁾ 과거는 항상 현실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볼테르의 동상은 1878년 5월에 열린 사망 100주년 기념제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기념제 이후 건립될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1885년에 그가 살았던 곳 근처에 위치한 프랑스학술원 뒤편에 세워졌다. 이보다 앞서 1884년에 디드로의 동상이 세워졌다. 루소를 숭배하는 이들은 대혁명기에 동상 건립이 결정되었으나 이때까지 동상을 갖지 못한 ‘공화국의 진정한 창시자’인 루소의 동상 건립을 1880년대 초부터 강력히 요구하다가 마침내 1889

50) Hargrove, *Les Statues de Paris*, p. 114.

51) Jean-Marie Goulemot et Eric Walter, “Les Centenaires de Voltaire et de Rousseau: les deux lampions des Lumières”,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Paris: Gallimard, 1984), pp. 381-420.

52) 코뮌나르에 대한 사면은 1879년 3월 3일자 법으로 일부 코뮌나르에 대해 이루어졌고, 모든 코뮌나르에 대한 사면은 1880년 6월 10일자 법으로 이루어졌다.

년 혁명 100주년에 팡테옹 광장에 설치하였다.⁵³⁾

계몽사상가들을 제외하고, 문학사를 빛낸 중세와 근대 그리고 19세기 문인들의 동상은 주로 작가들이 중심이 된 기념 사업회가 건립하였고, 동상 건립 과정에서 커다란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갈등이 발생한 경우는 문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시인 베를렌은 그의 작품보다 파리코뮌 참여와 랭보와의 동성에 관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동상 건립 반대가 심했다. 1896년 베를렌이 사망한 직후부터 작가 중심의 기념회가 동상 건립 허가를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동상 건립 장소를 거리나 광장이 아닌 뤽상부르 공원의 한적한 구석으로 허용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⁵⁴⁾

미술가, 음악가, 공연예술가들의 동상 건립은 대부분의 문인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논란을 겪지 않았다. 화가들 중심의 기념 사업회뿐 아니라 국가가 근대 저명 화가들의 동상을 조각가에게 의뢰하고 이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3공화정은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예술정책을 펼쳤으며,⁵⁵⁾ 예술가들의 동상 제작 의뢰와 건립은 조각가들에 대한 국가적 후원 활동의 일환이었다.

〈표 3〉 1880~1914년 파리에 건립된 음악미술공연예술가 동상 목록

이름과 생몰연도	특 징	위치	연도
팔리시(B. Palissy) 1510~1590	에나멜 미술가, 시 구매 조각상 설치	6구	1882
베랑제(J. Beranger) 1780~1857	상송 작사 작곡가, 기념회	3구	1895
베를리오즈(H. Berlioz) 1803~1869	음악가, 예술 아카데미 주도	9구	1886
뉴빌(A. de Neuville) 1836~1885	화가, 화가 중심 기념회	17구	1889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	화가, 문인과 화가 중심 기념회	6구	1890
라페(Denis Raffet) 1804~1860	화가, 화가 중심 기념회	1구	1893

53) Castellant, *La Statue de Jean-Jacques Rousseau*(Arrière: Trouttet, 1882), p. 4. AN, F21 4856, Marc Bonnefoy, Pétition pour un monument, le 9 décembre 1881.

54) René Doumic, “Les Statues de Paris”, *Revue des Deux Mondes*, 15 septembre 1896, pp. 443-444.

55) Cf. Marie-Claude Genet-Delacroix, *Art et état sous la III^e République: le Système des beaux-arts, 1870-1940*(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92).

이름과 생몰연도	특 징	위치	연도
벨라스케즈(Vélasquez) 1599~1660	에스파냐 화가, 국가 주도	1구	"
바레(A.-L. Barye) 1796~1875	조각가, 조각가 중심 기념회	4구	1894
부셰(F. Boucher) 1703~1770	화가, 국가 주도	1구	"
질(André Gill) 1840~1885	캐리커처 화가, 화가 중심 기념회	18구	1895
메소니에(Ernest Meissonnier) 1815~1891	화가, 화가 중심 기념회	1구	"
바토(Antoine Watteau) 1684~1721	화가, 화가 중심 기념회	6구	1896
샤를레(N. Charlet) 1792~1845	화가, 프랑스 석판화 예술가협회 주도	14구	1897
르메트르(F. Lemaitre) 1800~1876	연극배우, 극작가 중심 기념회	10구	1899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	음악가, 음악가 중심 기념회	6구	1900
토마(A. Thomas) 1811~1896	음악가, 음악 아카데미 주도	8구	"
구노(Charles Gounod) 1818~1893	음악가, 음악가 중심 기념회	8구	1902
프랑크(César Franck) 1822~1890	음악가, 음악가 중심 기념회	7구	1904
가바르니(Paul Gavarni) 1804~1866	화가, 프랑스 석판화 예술가협회 주도	9구	"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	음악가, 음악가 중심 기념회	8구	1906
고다르(B. Godard) 1849~1895	음악가, 음악가 중심 기념회	16구	"
보뇌르(Rosa Bonheur) 1822~1899	여성 화가, 시 주도 뿔로 광장 분수	15구	1907
바토(Antoine Watteau) 1684~1721	화가, 국가 주도	1구	1908
코로(J.-B. Corot) 1796~1876	화가, 구가 주도	1구	1909
제롬(J.-L. Gérôme) 1824~1904	조각가, 조각가 중심 기념회	1구	"
우동(Jean Houdon) 1741~1828	조각가, 조각가 중심 기념회	1구	"
콜롬브(M. Colombe) 1430~1512	조각가, 국가 주도	1구	1910
퓌제(Pierre Puget) 1620~1694	조각가, 국가 주도	1구	"
푸생(Nicolas Poussin) 1594~1655	화가, 국가 주도	1구	1911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문인과 미술가, 음악가, 공연예술가 다음으로 많은 동상이 건립된 것은 과학기술자들이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발전시켜온 진보의 가장 명확한 증인들로 새롭게 공적 숭배의 대상에 포함되어 갔다. <표 4>를 보면 동상 건립을 통해 기억되고 숭배된 과학기술자들이 중세 고딕 건축의 대표적 인물을 제외하고 모두 근대 과학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위대한 세기(Grand Siècle)’

로 표현되는 17세기의 과학기술자로는 건축가인 망사르와 조경설계가 르노트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위대한 세기’를 통치자 루이 13세나 루이 14세가 아니라 수학, 기하학, 지질학, 자연사 등을 건축과 정원 설계에 활용했던 과학기술자를 통해 기억하려 한 것이다. 또 다른 17세기의 인물은 왕실 의사이자 자선활동가, 그리고 1631년에 근대적 신문 『라 가제트 드 프랑스(La Gazette de France)』를 창간한 르노도였다. 그의 동상은 앉아서 신문에 기사를 쓰는 모습이고 받침대에는 “부유층은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의 발언이 새겨졌다.⁵⁶⁾ 르노도는 왕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최초의 근대 언론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된 19세기 말에 사회평화를 위한 상류층의 사회적 책무를 환기시키는 인물로 숭배되었다.

18~19세기의 과학자들로는 세계과학기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근대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 자연사학자 뷔퐁, 생물학자 라마르크, 대혁명기에 전보를 발명한 샤프, 미생물학의 창시자 파스퇴르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동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혁명적 사회주의의 성장을 제어하고 계급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르주아 사회개혁가들의 노력은 르노도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자선활동가들에 대한 기억의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 기업가였던 르클레르, 귀족 부인 이르쉬, 자수성가해 세계 최초의 백화점인 봉마르셰(Bon Marché)를 설립한 부시코의 미망인 동상이, 그리고 맹인들의 보호와 교육, 사회활동을 위해 헌신한 아우이의 동상이 건립되었다.

문화예술가들과 과학기술자들을 공적 숭배의 대상으로 허용한 것은 근대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이끌어 온 “개인주의를 찬양”하는 것이었는데,⁵⁷⁾ 상류층의 자선 활동은 개인주의의 성장이 낳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조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장려되어야 했다. 20세기 전환기의 부르주아 공화파가 사회문제를 각종 사회입법 마련을 통한 국가의 노력에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연대의 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사회개혁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⁵⁸⁾

56) Hargrove, *Les Statues de Paris*, p. 136.

57) Nicholas Green, “Monuments, Memorials and the Framing of Individualism in Third Republic France”, *New Formation*, No. 11(1990), pp. 128-129.

58) 20세기 전환기 부르주아 사회개혁가들과 급진공화파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자조 노력과 세속적 자선활동으로 해결하려는 자유주의 입장에 반대했다. 동시에 사회혁명을

〈표 4〉 1880~1914년 파리에 건립된 과학기술자 및 자선활동가 동상 목록

이름과 생몰연도	특 징	위치	연도
피엘(Philippe Piel) 1745~1826	의사, 정신분석의학회 주도	13구	1885
베르나르(C. Bernard) 1813~1878	생리학자, 프랑스 생물학회 주도	5구	1886
브로카(Paul Broca) 1824~1880	의사, 인류학회 주도	6구	1887
르베리에(Le Verrier) 1811~1877	천문학자, 과학 아카데미 주도	14구	1889
리코르(Philippe Ricord) 1800~1889	의사, 의사 중심 기념회 주도	14구	1892
아라고(F. Arago) 1786~1853	천문학자, 1848년 공화파 정치가, 파리천문대 주도, 아라고 대로에 건립	14구	1893
샤프(Claude Chappe) 1763~1805	공학자, 대혁명기 전보 발명, 전보국 주도	6구	"
르노도(T. Renaudot) 1586~1653	의사, 언론인, 자선활동가, 기념회	4구	"
부생고(J.-B. Boussingault) 1802~1887	화학자, 과학자 중심 기념회	3구	1895
르클레르(J. Leclaire) 1801~1872	자선활동가, 17구 구민 중심 기념회	17구	1896
샤르코(Jean Charcot) 1825~1893	의사, 의사 중심 기념회	13구	1896
플라샤(E. Flachet) 1802~1873	공학자, 프랑스 엔지니어협회 주도	17구	1898
알팡(J.-C. Alphand) 1817~1891	도시계획기술자, 기념회	16구	1899
라부아지에(Lavoisier) 1743~1794	화학자, 과학자 중심 국제적 성금으로 건립	8구	1900
펠르티에(P. Pelletier) 1788~1842	약학자, 파리 약대 주도	5구	"
카방투(J. Caventou) 1795~1878	약학자, 파리 약대 주도	5구	"
쉬브뤼엘(E. Chevreul) 1786~1889	화학자, 자연사박물관 주도	5구	1901
그람(Zenobe Gramme) 1826~1901	전기학자, 기념회	3구	"
가르니에(C. Garnier) 1825~1898	건축가, 기념회, 설계한 오페라 옆 설치	9구	1903
메티비에(A. Metivier) 1827~1893	의사, 시의원, 20구 구민 중심 기념회	20구	1904

통해 모든 사회문제를 한 순간에 해소할 수 있다는 혁명적 사회주의 입장에도 반대했다. 국가가 각종 사회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선호되었으나 이는 프랑스의 공화파가 '국가 사회주의(Socialisme d'Etat)'라고 비판했던 독일 제2제국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공화파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옹호하고 장려하고 후원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활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 사회입법들을 정비하였다. 다음을 참고하라. 민유기, 「20세기 전환기 프랑스의 급진공화파와 중도정치」, 『프랑스사 연구』 22호(2010), 101-130쪽; 「프랑스 사회개혁 두뇌집단 뮤제 소시알 활동과 보수적 개혁 1894-1914」, 『전남사학』 23집(2004), 221-248쪽.

이름과 생몰연도	특 징	위치	연도
파스퇴르(L. Pasteur) 1822~1895	미생물학자, 과학자 중심 기념회	7구	"
뒤부아(Emile Dubois) 1853~1904	의사, 14구 구민 중심 기념회	14구	1905
모르티에(Gabriel de Mortillet) 1821~1898	고생물 고고학자, 고생물학자 중심 기념회	5구	"
타르니에(E. Tarnier) 1828~1897	의사, 의사 중심 기념회	6구	"
부슈(Jean Bouchut) 1818~1891	의사, 시 주도 밀로 광장 분수	15구	1907
아우이(Valentin Haüy) 1745~1822	맹인 보호가, 시 주도 밀로 광장 분수	15구	"
밀로(Georges Mulot) 1792~1872	우물 공학자, 시 주도 밀로 광장 분수	15구	"
드장(F.-E. Dejean) 1821~1898	건축가, 건축가 중심 기념회	11구	"
르바소르(E. Levassor) 1844~1897	자동차 공학자, 기념회	16구	"
루셀(T. Roussel) 1816~1903	의사, 정치가, 알코올중독퇴치운동, 기념회	14구	"
망사르(Jules Mansart) 1646~1708	건축가, 건축가 중심 기념회	1구	1908
뷔퐁(Buffon) 1707~1788	자연사학자, 국가 주도	5구	1909
라마르크(Lamarck) 1744~1829	생물학자, 자연사박물관 주도, 국제적 성금	5구	"
페앙(Jules Péan) 1830~1898	의사, 외과수술 혁신가, 기념회	13구	"
피에르 드 몽트뢰이(Pierre de Montreuil) 1200~1266	중세 고딕 건축가, 국가 주도	1구	"
웰(Horace Wells) 1815~1848	치과의사, 파리 치대와 뉴욕 치대 주도	16구	"
베르(Paul Bert) 1833~1886	의사, 치과의사 벨 동상과 같이 건립	16구	"
세르폴레(L. Serpollet) 1858~1907	자동차 공학자, 산업가, 자동차클럽 주도	17구	1911
르노트르(A. Le Nôtre) 1613~1700	조경가, 베르사유정원 설계, 기념회	1구	1913
부시코(M. Boucicaut) 1816~1887	자선가, 봉마르세 백화점 설립자 부인, 기념회	7구	1914
이르쉴(C. de Hirsch) 1833~1899	자선가, 귀족, 부시코 부인과 함께 건립	7구	"

V. 나오며: 파리의 도시 정체성 만들기

1880년대 교육 개혁으로 의무, 무상, 세속화된 초등교육의 역사 교과나 시민도덕 교과는 제3공화정이 요구하는 기억의 틀을 제시하였다.⁵⁹⁾ 부르주아

59) 크리스티앙 아말비,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프랑스 역사에 나타난 영웅의 탄생과 몰락』, 성백용 옮김(서울: 아가넷, 2004).

공화국이 기억하고자 하는 역사 인물들은 학교 교과서뿐 아니라 공공장소의 동상들로 형상화되었다. 오리(P. Ory)는 한 논문에서 “시민들에게 조국을 빛나게 했던 위인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교육은 없을 것이다.”라는 1889년 라스파유 동상 건립 당시의 사료를 인용하면서 공공장소에 건립된 위인 동상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도구’였음을 강조했다.⁶⁰⁾

하지만 공공장소에 건립된 위인 동상이 증가하면서 위인 동상들의 교육적 효과는 크게 감소하였다. 1906년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청동과 대리석 위인들의 과잉으로 인해 어떠한 위인의 이름에도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개진되었다.⁶¹⁾ 1910년에 한 일간지는 위인 동상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없다.”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사화하였다.⁶²⁾ 1911년 시의회에서는 공공장소가 “미의식이 결여된 각종 동상과 기념물들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⁶³⁾ 위인 동상 건립의 유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1900년대 초부터 등장하였다. 한 일간지는 1901년에 “동상이 유행이다. 모든 곳에 동상이 세워진다. 위인이 없다면 새로운 위인을 만들어낸다.”고 적고 있다.⁶⁴⁾

시의회는 1906년에 샹젤리제 대로, 콩코르드 광장에서 센 강을 따라 직선으로 뻗은 17세기 사교계의 산책로였던 쿠르라렌(Cours la Reine), 몽소 공원, 블로뉴 숲에 위인 동상의 건립을 금지하였다.⁶⁵⁾ 1911년에는 사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물의 동상 건립도 추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⁶⁶⁾ 계속해서 1913년에는 “이미 건립된 동상의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새로 동상을 건립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동상을 건립하려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 동상의 미학적 가치, 건립 예정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것을 결정했다.⁶⁷⁾

60) Pascal Ory, “Le Centena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 p. 535.

61) CMP, *Bulletin municipal officiel(BMO)*, le 10 avril 1906, p. 1350.

62) *Le Matin*, le 25 juillet 1910.

63) CMP, *BMO*, le 6 janvier 1911, p. 161.

64) *Le Petit Journal*, le 15 juillet 1901.

65) CMP, *BMO*, le 10 avril 1906, p. 1351; le 13 décembre 1909, p. 4730.

66) CMP, *BMO*, le 15 juin 1911, p. 2324.

67) CMP, *BMO*, le 18 mars 1913, pp. 1588-1589.

20세기 전환기에 대해 늘어났던 위인 동상은 공적 숭배에 대한 둔감함을 낳으며 개별 위인들의 업적을 기억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감소시켰다. 하지만 도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문화예술인과 과학기술자들의 동상들은 문화와 문명에 대한 파리의, 파리 시민의, 프랑스인들의 집단적 열광을 증언하면서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파리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했다. 문화예술가와 과학기술자 동상은 그들이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 성취해 낸 예술적, 과학적 업적에 대한 공적 경의의 매개물이었다. 문화예술인과 과학기술자 동상의 대거 건립은 파리 외에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1912년에 나온 파리의 아름다움에 관한 책은 “동상이 죽은 이들의 영예보다 산자들의 영예를 위해 건립”된다고 쓰고 있다.⁶⁸⁾ 20세기 전환기 문화예술가와 과학기술자 동상 건립 붐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였고 파리 시와 정부의 허가와 지원으로 건립된 것으로 문화국가, 문화도시, 문화시민의 영예를 드높이는 것이었다. “문화는 국가적 유산의 기초였고,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예술이 국제적으로 거둔 영광 속에서 군사적 패배에 대한 강한 위로를 발견하였다.”⁶⁹⁾ 프랑스는 독일처럼 군사대국이거나 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아닌 문화국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파리는 제국의 수도도 아니고 혁명의 도시도 아닌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가길 원했다.

사실 파리는 대혁명과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을 통해 ‘혁명의 도시’, ‘바리케이드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제2제정 시기 파리의 대대적인 도시정비를 실시한 센 지사 오스만은 바리케이드의 공간이었던 파리의 도심부 노동자 밀집 거주 지역을 철거하여 바리케이드 투쟁의 가능성을 일소하고 도시경관을 미학적으로 장식해가며, 이 같은 이미지를 극복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1871년 파리코뮌의 경험은 제2제정이 만들어 놓은, 벤야민이 표현한 ‘근대성의 수도’ 파리의 이미지에 다시금 혁명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따라서 파리의 혁명적 이미지를 탈색시키고 부르주아 공화국의 영예와 발전을 위한 파리의 또 다른 정체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889년과 1900년의 만국박람회는 파리의 중심부와 서쪽의 부유한 구들에 기념비적 건축물과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각적 근대문화의 절정을 보여

68) Charles Lortsch, *La Beauté de Paris et la loi*(Paris: Sirey, 1913), p. 288.

69) Hargrove, *Les Statues de Paris*, p. 128.

주었다.⁷⁰⁾ 동시에 1880년부터 1914년까지 파리의 거리, 광장, 공원에 건립된 다양한 문화예술가와 과학기술자의 동상은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예술인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기억과 숭배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파리의 문화도시 정체성 만들기의 일환이었다. 하버드 대학 사학과와 유럽근대사 교수인 히고네트(Patrice Higonnet)는 2005년의 저서 『파리: 세계의 수도』에서 “파리는 현대의 종교인 문화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고 말한다.⁷¹⁾ 혁명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인 파리의 이중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다룬 이 책은 문화의 도시라는 정체성과 관련해 만국박람회, 예술 전시회와 각종 살롱전, 다양한 여가 공간 등을 다루면서도 문화예술인 동상의 대거 건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초입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이며, 특정 정체성 또한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서서히 형성된다. 따라서 20세기 전환기의 문화예술가와 과학기술자에 대한 공적 숭배 현상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파리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했고 절대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것이다. 하지만 제3공화정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면서, 가까운 과거였던 1871년 코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던 파리의 공공장소 곳곳에 문화예술가와 과학기술자들의 동상을 남겨놓은 것이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는 파리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광운대 교양학부)

70) Béatrice de Andia, *Les Expositions universelles à Paris de 1855 à 1937*(Paris: Action artistique de la ville de Paris, 2005), pp. 104-151.

71) Patrice Higonnet, *Paris, Capital du Monde: Des Lumières au surréalisme*(Paris: Tallandier, 2005), p. 11. 이 책은 그가 1999년에 파리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 초청교수를 지내며 프랑스어로 강의한 ‘계몽사상부터 초현실주의까지 파리의 신화들’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2002년에 전문 번역가에 의해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영어로 먼저 출간되었다. *Paris: Capital of the World*, trad. Arthur Goldhammer(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부록 1〉 1880~1914년 파리에 건립된 정치인과 군인 동상 목록

이름과 생몰연도	특 징	위치	연도
샤를마뉴(Charlemagne) 742~814	시 주도, 샤를마뉴 광장에 건립	4구	1882
바이(J.-S. Bailly) 1736~1793	대혁명기 선출직 파리시장, 국가 주도	6구	1883
플라테르(Paul Flatters) 1832~1881	군인, 사하라 사막에서 전사, 시의원 발의	14구	"
르드뤼-롤랭(A. Ledru-Rollin) 1807~1874	1848년 보통선거제 도입, 12구 구민 주도	11구	1885
블랑(Louis Blanc) 1811~1882	1848년 혁명가, 정치인 중심 기념회	5구	1887
마라(Jean-Paul Marat) 1743~1793	혁명가, 시 구매 조각상 설치	14구	1887
보비오(J. Bobillot) 1860~1885	하사, 인도차이나에서 전사, 기념회	11구	1888
강베타(Léon Gambetta) 1838~1882	제3공화국 초기 내각 수반, 국민 성금	1구	"
마르셀(Etienne Marcel) 1315~1358	중세 파리시장, 자치권의 상징, 시 공모전	4구	"
콜리니(Coligny) 1519~1572	위그노 군인, 성바르텔레미 학살사 사망, 프 로테스탄트 중심 기념회	1구	1889
라스파유(F. V. Raspail) 1794~1878	화학자, 1848년 공화파, 정치가 중심기념회	14구	"
당통(Georges Danton) 1759~1794	혁명가, 시 주도	6구	1891
잔다르크(Jeanne d'Arc) 1412~1431	시 구매 조각상 설치	13구	"
콩도르세(Condorcet) 1743~1794	혁명가, 시 공모전	6구	1894
라파예트(La Fayette) 1757~1834	군인, 미국광장에 미국인 성금	16구	1895
워싱턴(Washington) 1732~1799	미국 초대 대통령, 미국광장에 미국인 성금	16구	"
가르니에(F. Garnier) 1839~1873	군인, 인도차이나에서 전사, 기념회	6구	1898
잔다르크(Jeanne d'Arc) 1412~1431	내무부 구매 후 시에 기증한 조각상 설치	8구	1900
라파예트(La Fayette) 1757~1834	미국 어린이 성금으로 건립	8구	"
워싱턴(Washington) 1732~1799	미국 여성단체가 기증한 동상 설치	16구	"
마세(Jean Macé) 1815~1894	공화파 정치가, 교육개혁가, 교육동맹 주도	19구	"
보맹(Alphonse Baudin) 1811~1851	공화파 정치가, 1851년 나폴레옹3세 쿠데타 반대 시위 중 사망, 시 주도	11구	1901
루셀(Ernest Rousselle) 1836~1896	공화파 시의원, 시의회 의장, 지역민 주도	13구	"
시몽(Jules Simon) 1814~1896	3공화국 초 대표적 공화파 정치가. 기념회	8구	1903
데몰랭(C. Desmoulins) 1760~1794	혁명가, 공화파 정치가 중심 기념회	1구	1905
프랭클린(B. Franklin) 1706~1790	미국 정치가, 미국 은행가 기부	16구	1906
라바르(La Barre) 1747~1766	종교적 불관용의 희생자, 자유사상회 주도	18구	"

이름과 생몰연도	특 징	위치	연도
가리발디(G. Garibaldi) 1807~1882	이탈리아 통일운동가, 기념회	7구	1907
트라리의외(L. Trarieux) 1840~1904	정치가, 인권동맹 창시자, 인권동맹 주도	14구	"
슈레르-케스너(Scheurer-Kestner) 1833~1899	공화파 정치가, 상원 부의장, 드레퓌스파 핵심인물, 정치인 중심 기념회	6구	1908
플로케(C. Floquet) 1828~1896	공화파 정치가, 급진당 중심 기념회	11구	1909
페리(Jules Ferry) 1832~1893	공화파 정치가, 교육개혁가, 교육동맹 주도	1구	1910
발텍-루소(P. Waldeck-Rousseau) 1846~1904	공화파 정치가, 정치인 중심 기념회	1구	"
뒤마(Général Dumas) 1762~1806	식민지 혼혈출신 나폴레옹 군 장군, 문인 뒤마의 아버지로 가족 동상으로 건립	17구	1913

〈투고일자: 2010. 7. 4 심사일자: 2010. 8. 5 게재확정일자: 2010. 8. 11〉

주제어: 위인 동상(Statue of Great Man), 제3공화정(The French Third Republic), 도시 정체성(City Identity),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 파리(Paris)

〈Résumé〉

Identité formation de Paris comme Ville de la culture: Statues commémoratives des Artistes, 1880-1914

You-Ki MIN

Cet article a pour but d'analyser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identité de Paris comme Ville de la culture à partir des statues des hommes de lettres et de celles des artistes fondées en espace public de 1880 à 1914. A travers les Révolutions de 1789, 1830 et 1848, Paris a obtenu l'image de "Ville de révolution", "ville de barricades" tout au long de 19^e siècle. La Commune de 1871 renforce cette image.

Au milieu du 19^e siècle, la rénovation moderne et intensive de Paris par Georges-Eugène Haussmann était partiellement une étape pour embellir la ville. Cependant, le projet urbain d'Haussmann a suscité une forte antipathie de la part des ouvriers qui constituent la plupart des parisiens. La troisième République a été établie en 1870. Mais c'est à partir de 1879 que les Républicains ont entièrement pris l'initiative. Depuis 1880 jusqu'à la déclaration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de 1914, environ 150 statues ont été établies dans les rues, en places publiques, dans les parcs et dans d'autres locations diverses en Paris.

Plusieurs comités organisés par les citoyens ont pris l'initiative de la construction des statues des artistes. Tels monuments rafraîchissaient la pensée des habitants pour Paris comme centre de la culture et des arts, comme ville qui conçoit, adore et commémore tels hommes de lettres et tels artistes. Les statues ont ainsi contribué pendant cette période à créer l'identité de Paris comme une ville culturelle.

〈Summary〉

**Identity Formation of Paris as City of Culture:
Commemorative Statues of Artists, 1880-1914**

You-Ki M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identity of Paris as a cultural city through the statues of men of letters and artists built in public spaces from 1880 to 1914. Throughout the Revolutions of 1789, 1830 and 1848, Paris won the image as a 'city of revolution', a 'city of barricades' and 'a city on fire' throughout the 19th century. The Paris Commune of 1871 strengthens more this image.

In the mid-19th century, Georges-Eugène Haussmann's extensive modern renovation of Paris was in part a movement to beautify the city. But Haussmann's city project brought strong antipathy from laborers, who constituted most of Parisian citizens. In 1870 the third republic was established, but only in 1879 Republicans fully took control. Since 1880 till the outbreak of World War I in 1914, around 150 statues were installed in streets, plazas, parks and other diverse locations in Paris.

The erection of artist's statues was mainly lead by various citizens' committees. Such monuments refreshed people's minds of the fact that Paris was the center of culture and arts; a city that bore, worshipped and commemorated such men of letters and artists. The statues created during this period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identity of Paris as a cultural city.